

2023년 장애인 정책분야 국외연수사업



2023년 국외연수 결과보고

목 차

- **[발표 1]**
코펜하겐 IT 대학교 디지털복지센터 1
(육주혜 교수 /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 **[발표 2]**
Instituttet for Blinde og Svagsynede 기관소개 및 시사점 11
(권효순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 **[발표 3]**
Assistdata 기관 소개 및 시사점 27
(조호근 사무국장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발표 4]**
Digital Hub Denmark 기관 소개 및 시사점 47
(문영임 팀장 · 정성희 주임/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 **[발표 5]**
장애인협회 기관 소개 및 시사점 59
(정의철 사무총장 · 황진하 정책홍보팀 담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Center for Digital Welfare 기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발표 1. 육주혜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교수)

Center for Digital Welfare 기관 소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육주혜 교수/ 나사렛대학교 재활의료공학과

1. 기관소개

코펜하겐 IT 대학교(IT University of Copenhagen)의 디지털복지센터(Center for Digital Welfare)는 디지털 복지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하계(민관학) 등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디지털복지 서비스를 개발한다.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 개발 및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담, 건강 모니터링 앱, 디지털 교육 자료 등이 있다. 둘째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다.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혁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분석, 사무인터넷(IoT) 활용이 있다. 셋째로 공공 및 민간 기업, 학계,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복지 분야 혁신 창출을 도모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식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복지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디지털복지센터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복지센터(Center for Digital Welfare) 개요

코펜하겐 IT 대학교의 디지털복지센터는 디지털화된 복지 사회에서 적응하고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재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센터의 연구원들은 기본 사항과 복지를

위한 디지털화의 결과에 대해 질문하고 지속가능하고 민주적인 원칙을 존중하는 디지털화 솔루션을 제안한다.



[그림 1-1] 디지털복지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s://cdw.it.dk/>

(1) 구성원

디지털복지센터의 구성원은 모두 코펜하겐 IT 대학교의 구성원들이다. 센터장은 Business IT Technologies in Practice 전공의 부교수 이리나 파파주(Irina Papazu)이다.



[그림 1-2] 디지털복지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s://cdw.it.dk/>

(2) 작업 그룹

① 작업 그룹 1: 민첩한 상태

작업 그룹 1의 리더는 이리나 파파주 센터장이 겸하고 있다. 디지털화 프로세스에 참여하면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초점을 둔다. 정보 차원의 정치적 의사 결정 장치와 중앙 관리의 기술-관료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화에 집중한다.

② 작업 그룹 2: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

작업 그룹 2의 리더는 Business IT Technologies in Practice 전공의 부교수 시세 핀켄(Sisse Finken)이다.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존재하는 주체 위치 또는 중심에 중점을 둔다. '시민권'과 '복지'가 새로운 기술적 상상과 디지털화 실천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형되고 있는지 탐구한다.

특히 '취약한 인구'에 대한 디지털화의 의미 또는 새로운 기술 이니셔티브가 새로운 능력과 취약성을 모두 생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둔다. 고령화, 장애 및 의료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능동적 시민의식, 시민 과학 및 보안과 같은 널리 퍼진 아이디어 및 정책 담론을 탐구한다.

③ 작업 그룹 3: 일의 미래와 웰빙(Future of Work and Well-Being)

작업 그룹 3의 리더는 Business IT Information Systems and Digital Innovation (ISDI) 전공의 부교수 구이스 하더 피셔(Louise Harder Fischer)이다. 디지털화와 신기술이 일, 직장생활 및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측면으로서 웰빙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코펜하겐 IT 대학교(IT University of Copenhagen)

(1) 개요

코펜하겐 IT 대학교는 1999년에 설립되었다. 특화 분야는 컴퓨터 과학, 비즈니스 IT, 디지털 디자인이다. 학생 수는 2,380명이고 정규 직원이 330명이다.

(2) 학과/전공

① Business IT Department

- BSc in Global Business Informatics
- MSc in Digital Innovation & Management
- MSc in IT Management

② Computer Science Department

- BSc in Data Science
- BSc in Software Development
- MSc in Data Science
- MSc in Computer Science
- MSc in Software Design

③ Digital Design Department

- BSc in Digital Design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 MSc in Digital Design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 MSc in Games

2. 기관 주요 내용

한국장애인재단 국외연수단은 코펜하겐 IT 대학교의 디지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리나 파파주 센터장과 라인 니케르 요한센 대체 전략 프로젝트 관리자의 디지털복지센터 소개가 있었고 시세 핀켄 작업 그룹 2 리더가 디지털 시민의식 주제 관련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1-3] 디지털복지센터 방문 세미나



[그림 1-4] 코펜하겐 IT 대학교 건물 외부·내부

1) 덴마크 디지털화의 특징

덴마크는 디지털화 정도에 대한 국제 측정에서 항상 선두에 있다. 인터넷 접속 및 공공 디지털 서비스 수준이 객관적으로 높은 것이 증명되고 있다. 덴마크의 디지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덴마크는 공공기관 및 시민 간 신뢰도가 높다.
-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면 모든 시민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시민 번호(CPR)를 가지고 있다.
- 디지털 시민 번호에 대응하는 MitID로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공공 IT 인프라를 사용한다.
- 덴마크는 기술에 대해 낙관적이며 새로운 기술에 대해 긍정적이고 투자할 의향이 있다.
- 2014년 디지털 우편이 의무화되어 모든 시민은 디지털 방식으로 소통한다.

2)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

덴마크는 권리, 민주주의, 평등에 대한 초침부터 국가 효율성 향상까지 공공 디지털화를 솔루션의 방향으로 둔다. 여기서 디지털복지센터에서 중점으로 두고 사항은 디지털화가 복지국가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에 적응하고 국가 경쟁을 진전시키는데 참여해야 한다. 덴마크의 디지털화는 효율성을 위해 발전되었으며 이는 복지사회와 괴리되지 않고 함께 발전되어야 한다.

3) 디지털복지센터의 목표

- 디지털 복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학제간 연구 수행
- 디지털화와 복지의 관계와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지식 허브 역할 수행
-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창출
- 디지털 복지 사회를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 창출에 동참

4) 디지털복지센터의 내부·외부 회원

디지털복지센터의 내부 회원은 코펜하겐 IT 대학교의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이 겹하고 있다.



[그림 1-5] 디지털복지센터 내부 회원

출처: 디지털복지센터 방문 세미나 자료

디지털복지센터의 외부 회원은 민간, 공공 부문에 걸쳐 총 15팀이다. 예를 들어, 컨설팅 그룹, 덴마크 적십자, 인권연구소, 남부 지역 원격정신과센터, 21번 게이트, 전국 숙박 협회, 전국지방자치단체연합회, IT 관련 컨설팅, 청소년국, 코펜하겐 응용과학대학교 등이다.

5) 디지털복지센터의 활동 내역

디지털복지센터는 복지국가의 디지털화 결과를 연구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인 솔루션을 제안한다. 세부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디지털 실무 그룹 회의 및 탐험
- 디지털 복지를 주제로 한 저명한 연사 공개 강연 시리즈
- 이벤트, 워크숍, 마스터클래스, 연구 프로젝트 및 협업, 출판물
- 핫캐스트, 업계 저널 칼럼, 신문, 소셜 미디어 참여
- 외부 행사, 컨퍼런스, 페스티벌 등 참가



[그림 1-6] 디지털복지센터 행사 및 활동: 2023년 국민회의(청소년과 디지털 포용/배제)
출처: 디지털복지센터 방문 세미나 자료

6) 디지털복지센터의 프로젝트 현황

디지털복지센터의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프론티어에서의 초국적 협업: 공공 부문에서 국경을 넘어 지식 이동 디지털화 (2023-2026, 덴마크 독립 연구 재단)
- TAY HOME: 코로나 위기 기간 및 이후 집에 머물기(2020-2023, 칼스버그 재단)
- 디지털화 이후의 복지(2020-2023, 벨록스재단)
- 예측 경찰 업무에 대한 비판적 연구(2021-2024, 북유럽 연구)
- AI:DK(2021-2024, 업계 펀드)
- SOS: 도움이 요구되는 디지털 시민을 위한 인프라(2021-2024, 북유럽 연구)
- 핀테크 케어(코펜하겐 핀테크)

FØLG MED CDV!

- **Nyhedsbrev:** cdw.itu.dk → Nyhedsbrev
- **Twitter (X):** @cdw_itu
- **LinkedIn:** Center for Digital Welfare
- **Hjemmeside:** cdw.itu.dk
- For mere information, kontakt PM Line Nykjær Johansen på liny@itu.dk

30 22-08-2023



[그림 1-7] 디지털복지센터와 함께 해요!

출처: 디지털복지센터 방문 세미나 자료

7) 디지털 시민의식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

디지털 시민은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Karen Mossberger). 디지털 시민은 사회, 정치, 정부에 참여하기 위해 정보 기술(IT)을 사용하는 사람이다(Wikipedia).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기본 설정, 정치, 가치의 집합이 함께 제공된다. 누가 디자인하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필요한 문제이다.

디지털복지센터에서는 책임 있는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상호 작용에 중점을 두고 시민과 그 관행에 대한 디지털화,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요구 사항, 그룹 및 연령대(시민 및 비시민)에 따른 특히 취약계층의 디지털화 과제를 연구한다.

8) 취약계층 디지털 복지 관련 연구 목록

- Culén, A., L., Finken, S. & Bratteteig, T. (2013): “Design and Interaction in a Smart Gym: Cognitive and Bodily Mastery”. In Holzinger, A., Ziefle, M., Hitz, M., & Debevc, M. (eds.) Human Factors Computing and Informatics, Springer-Verlag. SouthCHI.
- Finken, S. & Mörtberg, C. (2014): “Performing Elderliness - intra-actions with digital domestic care technologies”. Kimppa, K., Whitehouse, D., Kuusela, T. & Phahlamohlaka (eds.) Proc. of IFIP TC9 Human Choice and Computer 11 Conference. Turku, Finland. July 30 - August 1, 2014, pp. 307-319.
- Finken, S. (2012): “HomeWork. Public care in private homes”. Chandler, J., Barry, J. & Berg, E. (eds.): Dilemmas for Human Services 2012. Papers from the 15th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East London, Staffordshire University and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London, 1-2 September 2011, pp. 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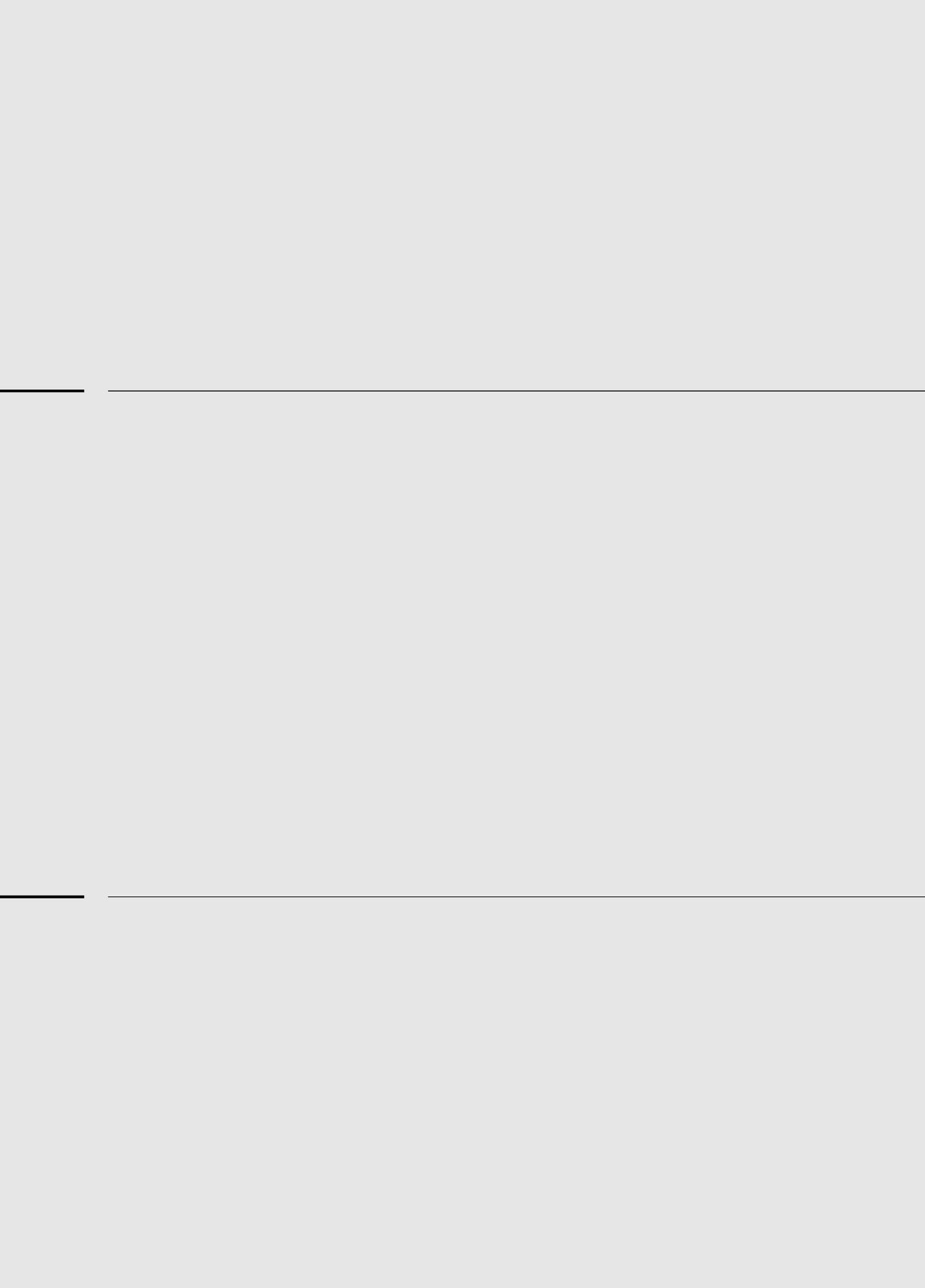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3. 국내도입 시사점

덴마크의 모든 학교는 국립이기 때문에 코펜하겐 IT 대학교에서 디지털복지센터에 대한 공간과 조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적인 지원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나 국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장애유형과 연령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이고 포괄적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연구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러한 형태의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디지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 조직 구현이 필요하다.

국내외 당사자, 연구자, 행정가, 기업인 개인 또는 집단이 서로 교류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제도에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제안과 자료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모든 국민에 대해 공론화하는 작업을 함께 전개한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접근성의 제도와 지원이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이 원하는 모든 활동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주제와 쟁점들을 다루면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솔루션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stituttet for Blinde og Svagsynede(IBOS, 시각장애인연구소)
기관 소개 및 시사점

발표 2. 권효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과장)

Instituttet for Blinde og Svagsynede(IBOS,시각장애인연구소)

기관 소개 및 시사점

권효순 과장/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임상재활연구과

1. 기관소개

전맹 및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연구소로 지역 사회, 교육, 직업 및 훌륭하고 활동적인 삶에 대한 평등한 접근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음. 교육 및 직업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가능한 한 자립적이고 의미 있는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세계(전국의 전문직 종사자 등)와 협력하여 지식을 개발하고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조사연구, 교육 및 상담 활동을 하고 있음. 조사연구로 사회 복지 평가, 안과 및 특수 광학 검사, ICT(정보 통신 기술), 조명, 인체 공학 및 시력 보조기구 관련 조사, ADL, 심리 및 신경 심리학적 조사 등을 수행하며, 상담은 주로 시력 보조 기구(ICT), 작업 보조 기구, 입법 문제, 지역 기회 및 다양한 종류의 도움 기회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교육 및 고용 영역 내에서 이루어짐. 또한 급성 시력 상실 시 위기 상담, 청소년과 부모 및 네트워크를 위한 전문 상담, 시각 장애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부모를 위한 전문 상담, 시각 장애 및 후천성 뇌 손상이 복합된 사람들을 위한 재활 전문 상담, 신체 접근성 및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 상담 등도 이루어짐.

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포함하여 학습 지도의 형태로 제공되며 학습 선택, 실행 및 통합에 대한 지침도 제공함.

1) 연혁

- 1811년 설립. 연구기관 이자 시각장애 노동교육기관임. 16세~65세 대상. 아동도 대상임.
- 1811년 덴마크는 외스테르브로에 최초의 시각 장애인 연구소를 설립.
- 1858년 국가가 왕립 시각 장애인 연구소를 인수. 학교, 식료품점, 작업장, 음악실, 부엌, 기숙사, 라운지, 도서관, 인쇄소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구비.
- 1968년 국립 시각 장애인 및 부분 시력 연구소가 Hellerup의 Rymarksvej에 설립. 수영장, 체육관 및 오르간 하우스 외에도 교육 코스 구비.
- 1980년 이 연구소는 코펜하겐 시 산하로 시각장애인(전맹 및 저시력)연구소로 명명.

2) 기관 개요

- 시각장애 노동교육 마치신분은 지자체에서 케어. 법률근거 재활훈련.
- 약 130명 직원(점자전문가, 작업치료사, 심리학자, 신경학자 등).
- 코펜하겐시에 속해있지만 전국단위로 활동함.
- VISO(The National Board of Social services)가 가장 큰 지원기관. 여기서 연구기금이 나오고 있다고 함.
- 10여개 법률 기반(Act on Active Social Policy, Active Employment Efforts Act, Act on Special Education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Declaration on VISO, Social Services Act, Special Education for Adults Act, Sickness Benefit Act, The Open Administration Act, Youth Education Act for young people with special needs 등).
- University College South Denmark, The Danish Association of the Blind(DBS), Hospitals and Health Care Centres, Private businesses and public organisations 등과 협력
- 홈페이지 주소: <https://ibos.dk/>

3) 조사기간 및 면담자

- 조사 기간: 2023. 8. 21(월).
- 면담자: Rasmus Paasch(ICT Specialist), Anne Sofie Marisa Jensen(ICT Specialist, Visually impaired)



[그림 2-1] 시각장애인연구소 앞 (한국장애인재단 조사연구팀)과 면담자



[그림 2-2] 시각장애인연구소와의 회의

2. 기관 주요 내용

1) 지원서비스

(1) 고용 및 일상생활 위한 재활 지원 서비스

전맹 및 저시력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가이드 제공 Employment Services (BIF)를 제공하고 있음. 일상, 교육 및 직장 생활을 위한 재활 서비스, 사업장에서의 직업활동, 일상활동 상담, 직업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라 일상생활을 구성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 그룹 운영하며 의미 있는 일상 생활을 통해 친교와 사회적 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표 2-1> 고용 및 일상생활 위한 재활 지원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비고
일상, 교육 및 직장 생활을 위한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 시장, 교육 및/또는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시각 보상 기술, 기술 및 전략에 대한 학습 	시각장애인	개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 IT(컴퓨터 및 휴대 전화 사용, 키보드 교육, 오디오복플레이어 및 메모 작성 장치), 점자(점자, 점자 전자 기기), 방향 및 이동성(지팡이 기술, 경로 학습, 대중 교통으로의 이동), 평범한 일상 생활 (ADL, 요리, 청소 등), 여가 및운동 		15주 동안 주 1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교육: 취업에 필요한 지원, 기술 및 지원 요구 사항을 조사하고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학습 지도 프로그램을 제공 (16세 이상) 		2주동안 주5~1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 멘토 및 컨설팅: 공공 시스템, 시각 전문가, 교육 기관 및 고용주 간의 협력을 통한 조정 및 지원 •시력 문제에 대한 조사, 시력 보정 작업 도구의 필요성 및 개인 지원 가능 •노동 시장 및 교육 요구 사항과 관련된 초점 영역 식별 및 직업 지향 지도 과정을 마스터, 직업 프로필 및 이력서 또는 교육 선택 준비, 인턴십 아웃리치활동 및 협의, 인턴십 후속 관리. 		1-5개월 동안 주 3-15 시간
고용보호, 일상활동 자문	<p>(SEL §103(사회복지법고용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에서 가벼운 조립 및 포장 작업, 직조 작업장 및 가벼운 서비스 작업, 상점 관련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 등 고용을 제공. 시각 보정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수행. <p>(SEL§104(사회복지법 활동 및 방문 자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또는 정신적 중복 장애가 있는 시각 장애 있는 18세 이상의 시민 대상. 기타 지적/인지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천성 뇌 손상/후천성 뇌 손상 및 발달 장애를 포함. •활동그룹은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따라 일상생활을 구성하여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킵. 활동 그룹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과 의미 있는 일상 생활을 통해 친교와 사회적 기술의 개발을 지원. 	시각장애인	개별상담

(2) 의료재활 지원 서비스

<표 2-2> 의료재활 지원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비고
심리학자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의 심리적 측면을 위한 임상심리학자 인터뷰 세션. 인터뷰는 시각장애인의 배경, 전체 조건, 현재 상황 및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구성. ●시력 상실을 정체성과 자아상에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이전 기능을 회복하려는 동기 부여와 자신과 미래의 기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함. 시력 상실 후에 불안과 우울증을 예방. 	시각장애인	개별설계
포스트 코모티오 Commotio 증후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력 관련 유전자에 대한 시각적 평가 제공. ●작업 치료사와 ICT 컨설턴트가 수행. ●빛과 피로에 대한 민감성을 완화하여 보조 기기와 개별 솔루션을 통해 오랜 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작업능력을 향상. ●시각보조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조명, 작업장 디자인 및 ICT 보조기기 등) 	18세 이상 시각장애인	개별상담
시각 뇌 손상 재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력 상실과 뇌 손상의 조합 장애 대응. 시각적, 심리적, 신경학적 지식과 경험을 결합한 신경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기반 사회 복지사와 신경 심리학자의 방문 인터뷰로 시작. VISO가 자금을 지원. ●개별 교육(예: ADL, 이동, ICT, 읽기), 가정 방문 및 교육, 신경 검안 재활(NOR, 6시간/21시간), 신경 비전 기술(NVT, Neuro Vision Technology, 뇌 손상 후 시야장애 대상의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22~25시간) 과정, 신경 심리학 평가, 감각 프로필(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능력과 일상 활동 수행과 관련된 사람의 행동 사이의 연결을 평가. 추가 재활 및 사회 공동체 참여 능력에 대한 주변 환경의 영향 및 보호에 대한 특별한 고려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10시간), ●AMPS3 테스트 및 평가(일상 생활(ADL) 수행의 질을 평가 도구, 일상 활동에서 활동 목표를 설정, 10시간) ●심리학자와의 대화, 절차 내용의 조정 및 지방 자치 단체에 결과 보고 	뇌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 청소년과 성인 대상	개별설계

(3) 청소년 지원 서비스

<표 2-3> 청소년 지원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비고
STU - 특별히 설계된 청소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 생활에서 커뮤니티, 전문성 및 개인 개발에 중점. 장애의 기회와 한계를 다루는 법을 배움. ● 이동(실내 및 교통 이용), ADL 기술(요리, 청소 및 옷 입기 등), 시각 보상 ICT 기술 및 보조기기, 덴마크 및 해외 유학 여행, 배운 모든 기술이 통합되는 연례 연극 공연, 운동 과목과 수영, 주거 교육 및 테스트 아파트에 머물기, 뮤직, 학교 과목(덴마크어, 수학, 영어 및 기타 과목), 작업장 교육(도자기, 목재, 재봉 및 직조 작업장) 	시각 장애 청소년	주당 28 수업시간, 개별상담
청소년 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시력 문제 조사, 실내와 교통 체중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이동 교육, ● ADL 기술 교육, 시각보상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줌텍스트, 10손가락 시스템, 점자, 촉각자료 읽기 등) ● 덴마크어, 수학, 언어, 사회, 체육 및 음악의 일반 교육, 스터디 여행, 테마 주간, 레저 활동, 친교, ● 학생 카운슬러, 사회 복지사, 노동 시장 컨설턴트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심리학자, 신경심리학자,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 및 테스트, 노동 시장 요구 사항과 관련된 초점 영역 식별 및 이를 마스터하는 것에 대한 권장 사항, 외부 인턴십 ● IBOS의 주거 시설에서의 주거 교육 및 숙박 	16세에서 30세 사이 시각장애 청소년	6개월~2년까지 다양. 주25시간

(4) 거주 및 기타 지원 서비스

<표 2-4> 거주 및 기타 지원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서비스대상	비고
거주	<p>(SEL§ 108 장기 주거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시설은 여러 기능 장애가 있고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시각 장애인 대상. ●주거 시설은 거주자의 집으로서 기능하며, 감소된 기능 능력을 고려하여 보상함. ●사회 공동체와 주민간의 네트워킹,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활동 지원, 가사, 건강 및 재정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 약물 투여 또는 식이 준수 등 지원. <p>(SEL§ 66 - 청소년을 위한 주거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 장애, 기타 지적/인지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선천성 뇌 손상/후천성 뇌 손상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한 기타 문제가 있는 18세 이상(\$66 16-18세). ●의사, ADL, 재정, 의약품 등과 같은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지원.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등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사회 활동 지원. ●연중무휴 체류는 교육, IBOS Young, STU 등과 병행 서비스. ●아파트는 30m² 규모로 주방과 샤워 시설/화장실이 있습니다. 객실은 15m²이며 침대, 책상, 옷장구비. 샤워실/화장실, 거실, 주방 2개, 세탁 건조실 및 피트니스 룸을 공용. 	시각장애인	개별설계
음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gic 및 Sibelius와 같은 다양한 시각 보정 보조기기와 가장 적합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당 약 18개의 수업으로 구성(음계, 노래와 목소리 이론, 피아노, 귀 훈련/이론, 음악의 역사, 리듬 표기법 (음악 작곡 프로그램 Sibelius의 시각적 보상 지침 포함), 앙상블, 감독 연습, 콘서트, 록 박물관, 녹음 스튜디오 또는 이와 유사한 음악 여행, 시력 보상 교육 (컴퓨터 및 iPad의 음악 프로그램, ADL, 이동성), 휴식과 신체 인식. 	시각 장애인 18 세 이상	개별설계



[그림 2-3] 주거 훈련시설

2) 디지털기술 연구프로젝트 사례

(1) BlindTech- 시각 장애인의 AI 기술의 창의적 사용

① 프로젝트 내용

-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 폰, AI 스마트 안경 및 디지털 홈 어시스턴트 (예 : Google Home)를 통해 시각 장애인을 보고 대화 할 수 있는 앱과 같은 인공 지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사.
- AI의 창의적 적용에 대한 인본주의 이론을 개발하고,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이고 독립적인 삶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AI 기반 사회 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
- 학습 및 교재 개발.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2020 - 2023.
- 관리자: 코펜하겐 대학교 북유럽 연구 및 언어 지식학과 부교수 Brian Due.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보 알스트럽(Bo Alstrup)과 비르기트크리스텐센(Birgit Christensen).

- 재단: VELUX 재단: DKK 5,092,294(*190원) 그 중 IBOS. DKK 1,406,200 IBOS 공동 파 이낸싱: DKK 290,000.

(2) 시력 지원 - 눈 제어 디지털 안경

① 프로젝트 내용

- 시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안경 서비스를 개발하고 테스트함.
- IBOS는 시민과의 접촉과 시각 지식에 기여하고 있으며, 협력을 통해 이를 확대하고자 함.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2020-2022.
- 프로젝트 관리자: DTU 교수 John Paulin Hansen, 관리 및 인적 요인 그룹 책임자 및 Per Bækgaard부교수, DTU 컴퓨팅 및 디지털 미디어 엔지니어링.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Mette Louise MurmannFrosberg.
- 재단: SynoptikFonden, 연구 및 교육: DKK 3,661,273. 파트너 IBOS: DKK 112,218 및 VISO를 통한 공동 자금 조달.

(3) 시각 장애인을 위한 가상 현실 - VR4VIP

① 프로젝트 내용

- 맹인 및 부분 시력(VIP) 학생을 위한 직업 교육 및 훈련에서 가상 현실(VR) HMD사용의 가능성과 결과를 조사.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 대상 그룹에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
- 시각 장애인 그룹과 관련된 파트너 국가의 VR 관련 제품, 연구 및 프로젝트를 조사.(직업) 교육 및 훈련에서 기존 VR 응용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및 시연.
- 직장에서 VR 응용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및 시연.
- 직업 훈련에서 VR 분야의 연구 분야 및 결과 발표.
- The main objective of this ERASMUS+ project is to collect and exchange information concerning Virtual Reality (abbreviated: VR) and Augmented Reality

(abbreviation: AR) in context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 1.The visual distance between the eyes and the display is small and thus enables visual perception even with severely reduced visual acuity.2.The field of vision that can be displayed on commercially available systems is between 100 and 110° and thus offers a usable display range even in the case of failures in the central or peripheral field of vision.3.By virtually zooming in and out on objects, they can be enlarged and reduced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4.Interferences from scattered light, reflections and glare are avoided by the design of the devices.
- These factors indicate that VR systems can be used for education and the vocational training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Here i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use the technical capabilities of these systems as assistive, diagnostic and training device.
- <https://www.vr4vip.net/>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2021 - 2023.
- 프로젝트 관리자: Berufsförderungswerk, BFW-Düren, Germany by Jürgen Hüllen.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DorteMarie Degn, Kenneth Hartmann
- 파트너: Hilfsgemeinschaft der Blinden und Sehschwachen Österreichs: Leitung Geschäftsstelle 및 Actoe. V, (독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지역 연구소), Rittmeyer 및 Fondazione Istitutedei Sordidi Torino(이탈리아,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국립 재활 센터), 불가리아.

- 펀드: EU 에라스무스+KA2 - VET - 소규모 파트너십(2021년). & IBOS는 약 DKK 61,680.

(4) 시각 장애 학생을 위한 3D 프린팅 소개 -T4VIS-in3D

① 프로젝트 내용

- 중증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에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것.
-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교사와 트레이너에게 3D 프린터 활용을 소개. 트레이너는 참가자를 위한 촉각 교재와 도구를 만듦.
- 다음 단계는 트레이너가 습득한 경험을 사용하여 시각 장애 학생의 방법론적 요구 사항에 따라 학생들에게 3D 프린팅을 가르침.
- 또한, 프로젝트 기간 동안 개발된 제품은 3D 프린팅 포털(Thingiverse)과 시각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개방형 포털에 게시될 예정이며, 이는 오스트리아 파트너가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호스팅함.
- <https://www.t4vis-in3d.net/>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2020 - 2023.
- 프로젝트 관리자: Berufsförderungswerk, BFW-Düren, Germany.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Kenneth Hartmann, 다른 파트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및 스페인.
- 펀드: EU - 에라스무스, IBOS쪽은 약 DKK 400,000.

(5) 뇌손상후 시각 기능 회복 - NVT(Neuro Vision Technology)의 효과

① 프로젝트 내용

- IBOS가 개입군(최소 56세+) 및 대조군 전후로 임상 테스트를 수행하고 동적 NVT 방법의 재활 연구 프로젝트.
- 뇌 손상(뇌졸중 등)으로 인한 시야 결손과 이동성, 활동(ADL) 및 읽기 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있는 사람 대상.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2017-2020. 2024년까지 연장 Covid 및 대조군 추가.
- 프로젝트 매니저: HerlevUniversity Hospital v. 부교수, 컨설턴트 Karsten Overgaard, Herlev대학 병원 및 신경 심리학자 Rune SkovgaardRasmussen, 코펜하겐 실험 뇌졸중 부서, BRIC - 생명 공학 연구 및 혁신 센터, 코펜하겐 대학.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Nanna FrørupMikkelsen, Rådgivningen.
- JaschaFoundation, NVT의 효과, IBOS쪽 DKK 300,000.등 DKK 2,022,200

(6) 스타가르트병환자의 전자 안경의 시각 재활 가능성 - 파일럿 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내용

- 스타가르트진단을 받은 10명의 시민은 시력 향상 전자 안경 3개 중 2개(eSight, IrisVision, Acesight및 Jordy)를 선택, 집에서 안경을 착용, 경험.
- 지금까지 6개의 코스가 완료.

② 프로젝트 펀드 등

- 프로젝트 기간 : 2019 - 2020. 프로젝트 관리자: Eye Clinic Kennedy Centre, Rigshospitalet-Glostrup(ØKC-RH), 저명한 검안사Joaquim TornerJordana.
- 시각장애인연구소(IBOS) 파트너: Pernille DuelundHøjstrup,
- 재단: 안과 재단: DKK 297,110.
- IBOS: DKK 85,875. VISO 공동 파이낸싱.

(7) 기타 디지털접근성 연구 지원

① 프로젝트 내용

- 접근성 전문가 제공 - 만나질 또는 하루 종일; 스크린 리더 및/또는 배울로 솔루션을 현장에서 테스트.
- 접근성 정책 작성 및 준비에 대한 지원 (모든 공공 기관은 2020년 9월 23일까지 웹사이트에 접근성 정책을 게시해야 함)
- 접근성 보고서 작성: WCAG를 기반으로 구성된 분석을 제공하고 오류를 쉽게 수정할 수 있게 함.



[그림2-4] 시각장애인연구소내 리빙랩



[그림2-5] 색상, 명도, 조명각 등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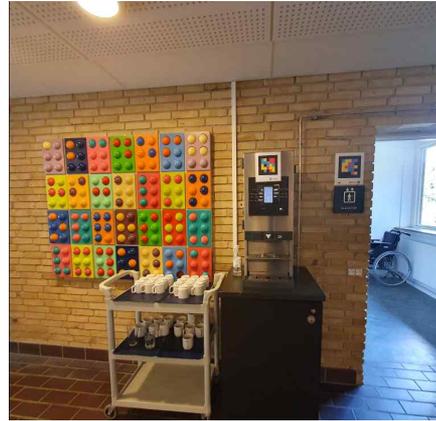
[그림 2-6] 축소화 훈련장갑



[그림 2-7] 보조기기 체험장



[그림 2-8] 컬러코드(시설정보)



[그림2-9] 로비의 커피대(시각장애인
겸용)

3. 국내도입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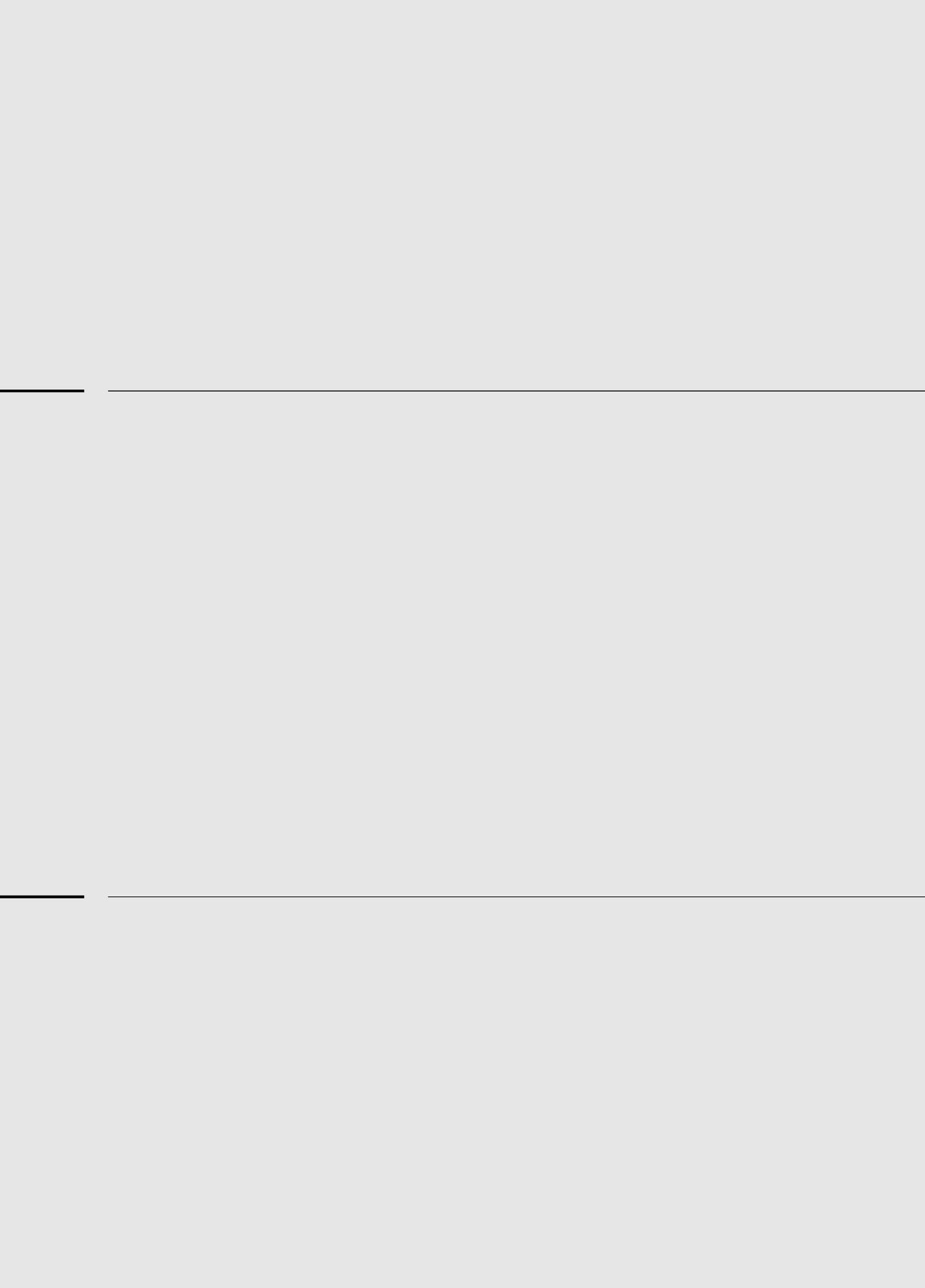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 덴마크는 디지털시민화에 어려운 시각장애, 인지장애, 발달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는 장애인, 노인 등 약 10% 국민에 대해 디지털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접근 중임.
- 시각장애인연구소 등과 같이 기존 개발된 기술의 활용 교육, 접근성을 고려한 기술의 개발 등 지원으로 디지털화 역량 강화하고 있음.
- 도서관, 협회, 시각장애인연구소 등 공공기관 등에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도움을 주는 인력 배치(가급적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디지털화되는 정부 및 사회에 맞춰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최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연구소에서 다양한 기술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컨설턴트 등을 통해 활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최신기술의 접근성 개선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 정부에서 직업교육비용을 지원해주거나 고용관련해서 지자체 잡센터에서 비용지원해 주고 있음.
- 디지털기술 등 보조기기사용 교육을 면담에 참석한 여성장애인(Ane Sofie Marisa Jensen)

- 같은 컨설턴트들이 다른 저시력장애인과 전맹장애인에게 해주고 있다고 함.
- 정부 등 지원으로 시각장애인연구소 등 장애인관련 기관과 기업,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장애인을 위한 기술 개발, 접근성 개선 등의 연구 및 제품화에 나서고 있음.
- 디지털기술 등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하기 보다 개발한 것을 시각장애인에게 적용하다보니 활용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기도 한다고 함.
- 웹표준인증기준 적용은 올 7월1일부터 공공기관, 기업 웹페이지에 접근성 기능을 부여해야 함.
- 시각장애인연구소는 접근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하고 있다고 함. 웹접근성 평가는 디지털청에서 함.
- 웹표준인증기준 적용하기 위한 개발기업과 시각장애인연구소에서 협력.
- 시각장애인연구소에서 100개 이상 기관들의 TF에 들어가서 가이드라인 개발 조언하고 있다고 함.
- IT기업이 연구기금으로 출자해서 덴마크 공대에서는 산학 기술개발만 하고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사게 되어 상용화과정을 거치는데 대기업이나 산학협동에서 연구된 것을 시각장애인연구소에서 테스트해보고 개선 피드백 해주고 있음.
- 시각장애인연구소는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고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인프라 측면에서 강한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연구공간은 임상의, 공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협업을 하고 있음.

참고문헌

덴마크 시각장애인연구소 홈페이지 <https://ibos.dk> .

Rasmus Paasch(2023), 덴마크 시각장애인연구소 소개자료.



Assistdata 기관 소개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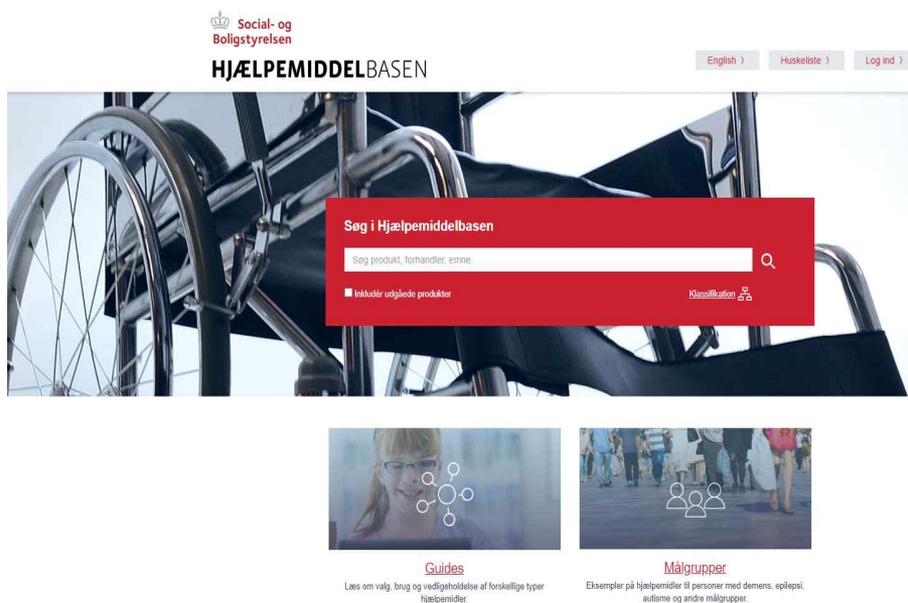
발표 3.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Assistdata 기관 소개 및 시사점

조호근 사무국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1. 기관소개

Assistdata(<https://hmi-basen.dk>)는 덴마크 보건부와 사회부의 후원을 받는 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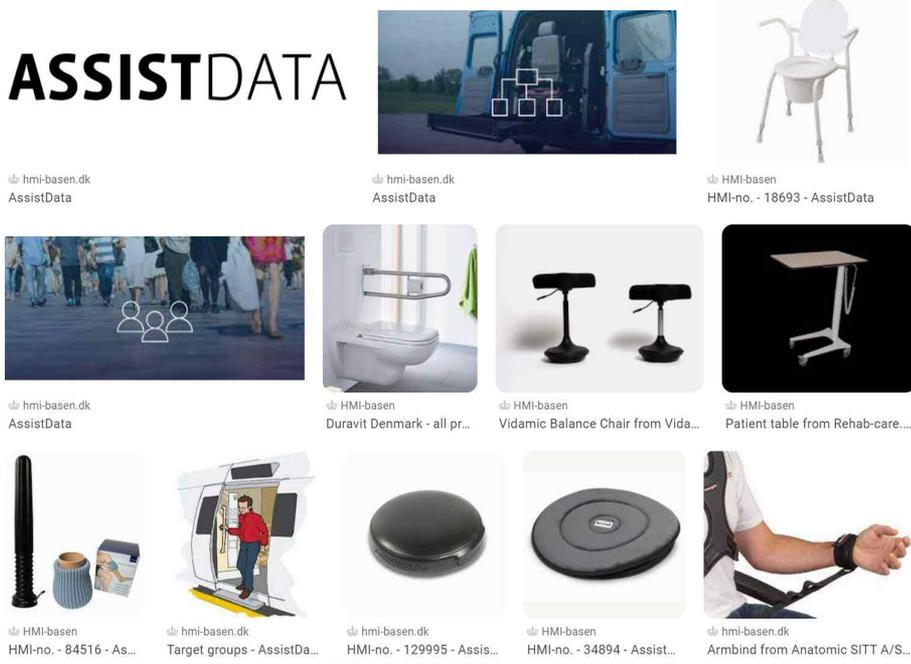


[그림 3-1] Assistdata 홈페이지

1) 주요 업무

(1) 보조 기기와 기술 제공

다양한 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조 기기와 기술을 제공한다. 이러한 보조 기기는 청각, 시각 및 운동 기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된다.(예: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독서 지원 기기, 운동 기능 장애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 등)



[그림 3-2] Assistdata 홈페이지

(2) 상담 및 정보제공

덴마크 시민들에게 보조 기기 및 기술과 관련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덴마크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맞는 최적의 보조기기와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Assistdata 웹사이트와 기타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덴마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 보건 및 사회 서비스 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보조 기기와 기술의 보급, 서비스의 개선 및 지역사회 장애인 및 노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이루어진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보조 기기와 기술을 통해 보다 독립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는 덴마크의 중요한 기관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포용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Assistdata와 관련된 정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기관 주요 내용

1) 기관 내용

(1) 보조 기술 분야의 개념

보조 기술 분야는 장애 집단, 연령 집단, 전문 집단, 무역 분야 등을 넘나드는 학제간 연구이다. 이 분야는 일반적인 사회·기술 발전과의 관계 및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조제품, 보조제품 제공,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보조제품, 복지 기술 및 접근성은 보조 기술 분야의 5가지 핵심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는 방식은 현장에 대한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① 보조제품

보조제품은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줄이는 제품이다(ISO 9999, 2022 참조). 이 정의는 기능과 장애의 개념에 대한 변증법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기능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상과 상호 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의 속성과 기술을 포괄하는 반면, 장애는 인간의 속성만을 포괄한다(ICF, 2001, WHO 참조).

따라서 보조제품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특성을 지닌 보조제품 또는 주류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되는 제품일 수 있다. 따라서 보조제품은 법률의 특정 부분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이나 특정 지침에 포함된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② 보조제품 제공

보조제품 제공은 개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장애를 줄이는 보조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상적으로 유도하는 프로세스이다. 보조제품 제공에는 문제 발견, 선택, 조정, 상담, 적절한 후속 조치가 포함된다. 이 단계는 공공 제공 과정의 일부이며, 치료, 교육 및 보건 등 전문적인 방법의 사용과는 별개로 전문 지식과 실제 경험이 필요하다.

③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보조제품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보조제품의 개념은, 보조 기술 분야의 덴마크 지방 당국의 관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고용주의 의무에 관한 작업 환경법 § 15를 참조하여 사용된다.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책임 있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직원에게 제공한다.

또한 주어진 상황에서 시민이 도움 없이 사용하는 개인 보조제품으로 특성화시키지 않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간주 되는 보조제품의 범주로 자주 사용된다. 시민과 함께 안전보건 관련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돌봄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적으로 특정 제품이나 특정 종류의 제품을 일방적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보조제품 또는 개인 보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④ 복지 기술

복지 기술은 덴마크에서 사회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이전에 사용된 도구, 기술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고, 저렴하게 사회 및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 솔루션의 혁신 또는 보급에 전념하는 자원과 연결된다. 따라서 특정 제품이나 기술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 사용을 포괄하는 목적 프로세스에 연결된다.

⑤ 보조 기술 분야의 복지 기술

복지 기술은 보조제품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서비스 제공에 포함된 특정 기술도 개인과 관련하여 보조제품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복지 기술과 보조 제품의 개념 차이는 복지 기술은 프로세스 및 전달 지원의 관점을 포함하는 반면, 보조제품은 주로 개인의 기능에 관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로봇청소기는 공공 서비스에 로봇청소기의 사용을 보급하려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 복지 기술 조치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보급이 구현되면 로봇청소기는 간병인의 작업장 도구로 볼 수 있다.

로봇청소기인 제품 자체는 다른 맥락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를 보상하는 보조제품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로봇청소기를 복지 기술 활동으로 활용하는 가능성과 로봇청소기가 보조제품인지에 대한 고려는 기술 및 사회 발전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결국, 보조공학 분야의 복지 기술은 장애인에게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수립한 과정에 적용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⑥ 접근성

장애인의 접근성은 활동 수행, 독립적 생활, 사회 및 사회생활 참여에 대한 접근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다. 보조제품 및 보조 기술 적용을 통해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인간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다양한 개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 원칙을 나타내며, 환경, 서비스, 제품을 디자인하고 활동과 참여의 장벽을 낮추며, 보조제품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를 위한 최적의 활동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이상적인 사회와 관련하여 접근성, 디자인, 보조제품의 활용개발 간 역동적인 상호 작용을 다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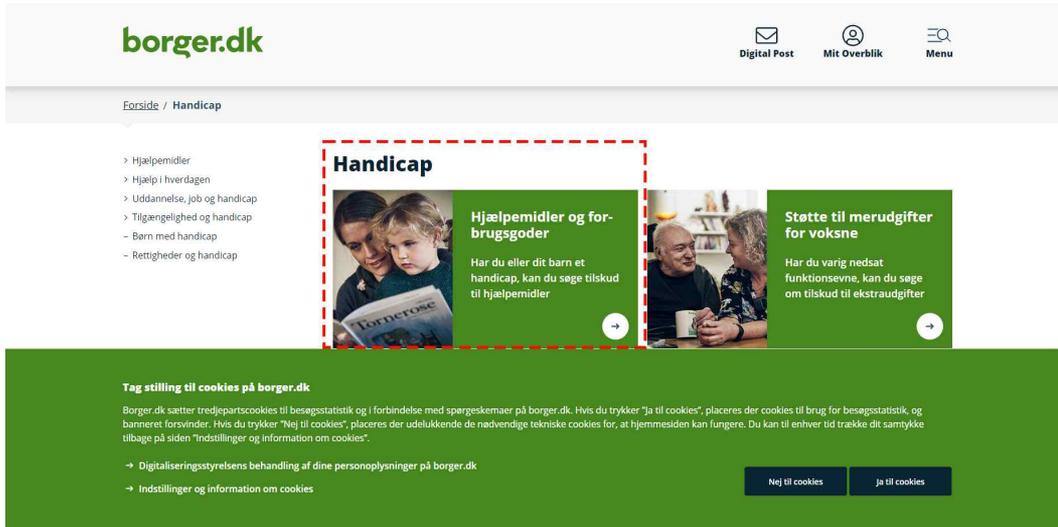
(2) 보조제품 신청 및 제공

보조제품은 사회, 건강, 직업, 학교 및 교육 분야에서 입법 조치에 따라 제공된다. 따라서 보조제품이 필요한 경우 요청해야 할 곳이 다르다.

덴마크 장애 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부문별 책임 원칙이다. 보조 기술 분야에서 이 원칙은, 보조제품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하는 부문에서 보조제품을 제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① 사회적 영역

사회복지법에 따른 보조제품 신청은 웹페이지 borger.dk/handicap에서 온라인 셀프서비스를 통해야 하며, 여기에서 보조제품, 소비재, 자동차 및 주택 개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그림 3-3] borger.dk/handicap 홈페이지

borger.dk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시민 서비스 사무소나 지역 당국의 보조제품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지방 당국은 보조제품이나 소비재 제공 가능성 또는 보조제품이나 소비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는 대체 지원에 대한 기타 가능한 옵션에 대해 시민들에게 조언과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건강 영역

평가 및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보건 문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치료·보조 제품용 장비를 제공한다.

때때로 병원이나 지방 당국이 치료·보조 제품을 위한 장비에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경제¹⁾에 관한 부서의 통지에 따르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치료에 필요한 장비나 보조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고, 자금 조달 문제는 관련 당국 간 나중에 해결할 수 있다.

③ 취업 영역

장애 또는 근로 능력의 일시적 제한이 있는 사람은, 장애 또는 근로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 직

1)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함.

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 분야의 지원과 관련된 부여 권한은 거주지 자치단체의 취업 센터에 있으며, 지원은 대출이나 보조금으로 제공될 수 있다.

④ 학교 및 교육 영역

초등학교에서는 특수 교육 및 기타 특수 교육 지원을 받는 학생에게 학교에서 특수 교육 자료와 필요한 보조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는 교육 및 품질 기관에 신청 및 승인을 받은 후 학생에게 특수 교육 자료 및 필요한 보조제품이 제공되며, 학교·교육 기관은 사용자(학생)를 대신하여 교육 및 품질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2) 기관 방문

(1) 인터뷰 내용

① 보조기구 지원 목적

보조기구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법²⁾에 따라 보조기구를 지원하게 되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② 보조기구 지원

지자체에서 서비스법에 근거하여 보조기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세 가지 항목(장애인들의 신체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기구,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구)에 적합할 경우이다.

보조기구를 신청해서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이며, 서비스법에 새로 추가된 부분은 긴급하게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게 된 부분이다.

2) 1974년 사회복지서비스통합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관되었다.

③ 보조기구 구입

각 지자체에서 보조기구들이 필요하게 되면 입찰 공고(필요 조건 포함)를 내고, 해당 기업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그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구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 입찰을 하지만, 입찰할 필요가 없을 경우 3년 또는 4년에 한 번 입찰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상한선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④ 보조기구 사용 기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번 지원 받으면 의무 사용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덴마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무 사용 기간은 없다. 또한 재고 관리나 재활용은 다 지자체(담당 공무원)에서 하게 된다.

⑤ 장애인 근로자 보조기구 지원

지자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에서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한다.

⑥ 보조기구 선택

지자체에서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를 구매할 때 실제로 사용할 장애인이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

⑦ 기타 보조제품 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놀이, 스포츠, 취미, 여가 활동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제품, 가사 활동 등을 위한 제품 및 성행위 보조제품도 있다.

성행위 보조제품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도 똑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의 일환이기 때문이나, 지자체에서 성행위 보조제품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노르웨이에서는 가능)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장애인들을 돕는데 필요한 기구들도 지자체에서 제공(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의견 반영)한다.

⑧ 서비스법 규정

보조기구 지원은 서비스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장애인의 특정한 신체적 기능을 도와주는 것이고, 둘째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고, 셋째는 장애인이 노동 시장에서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부합 할 경우 서비스법에 따라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⑨ 보조기구와 소비재

보조기구 같은 경우는 100% 지자체에서 소유·관리하며, 개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지만, 소비재의 경우는 50%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소유권은 각 개인이 갖는 것이 차이점이다.

따라서 보조기구는 말 그대로 100% 장애인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고, 소비재의 경우는 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⑩ 보조기구 재사용

보조기구의 경우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신품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으며, 반품 등을 받은 제품은 세척·수리·소독 등의 과정을 거쳐 새것처럼 만들어 재사용하게 된다.

(2) 인터뷰 PPT 자료



98 kommuner

Har stor grad af selvstyre – økonomisk og politisk.

Ansvarlig for hjemmepleje og bevilling af

- hjælpemidler til hverdagslivet
- boligændringer

... og meget m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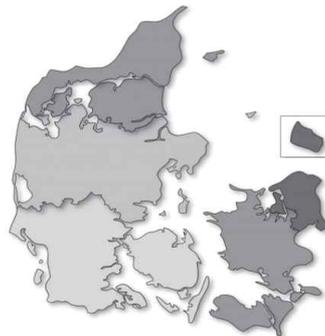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2

5 regioner

Ansvarlig for behandling

- almenpraktiserende læge, lokalt
- hospitaler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3

4 kerneprincipper ved bevilling af hjælpemidler

Kompensation - En person med funktionsevnenedsættelse modtager – i videst mulige omfang – kompensation for konsekvenserne af hans/hendes nedsatte funktionsevne, med henblik på at være i stand til at deltage på lige fod i samfundslivet.

Solidaritet - Hjælpemidler er gratis for den enkelte person. Alle deler, via skatten, ansvaret for at sikre, at personer med nedsat funktionsevne modtager den nødvendige støtte.

Sektoransvarlighed - Alle administrative sektorer skal sørge for støtte til personer med nedsat funktionsevne. Bevillingen af hjælpemidler påhviler den myndighed, hvor behovet opstår.

Ligebehandling - Alle skal have mulighed for at udleve deres drømme og potentialer. Alle har ikke ret til samme behandling, men behandlingen skal tilpasses konteksten. Dette er et resultat af FN's standardforskrifter for ligestilling og ligebehandling af handicappede. Ratificeret af Danmark i 1993.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4

Kommuner

Foretager stor-indkøb gennem offentligt udbud.

Hver kommune (eller sammen med 1-2 andre) har deres eget hjælpemiddeldepot.

Hver kommune administrerer sit varelager af hjælpemidler og genbruger produkterne.

Princippet for bevilling af hjælpemidler

Princippet i servicelov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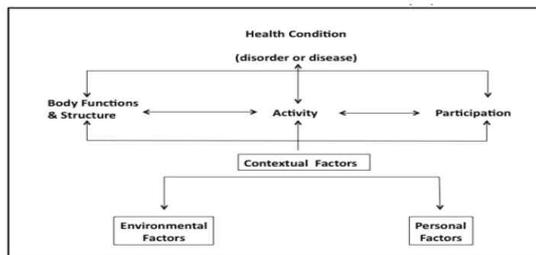
Kommunen skal yde støtte til hjælpemidler til personer med varigt nedsat fysisk eller psykisk funktionsevne, når hjælpemidlet

- 1) i væsentlig grad kan **afhjælpe de varige følger** af den nedsatte funktionsevne,
- 2) i væsentlig grad kan **lette den daglige tilværelse** i hjemmet eller
- 3) er nødvendigt for, at den pågældende kan **udøve et erhverv**.

Bevilling

Ergo- (eller fysio-) terapeuten:

foretager en helhedsvurdering, fx ved brug af ICF



Sagsbehandlerens opgaver

- Modtager ansøgning om hjælpemiddel fra borgeren
- Kontakter borgeren for at vurdere behovet
- Forholder borgerens behov til lovgivningen
- Laver en afgørelse
- Sørger for, at hjælpemidlet bliver leveret til borgeren
- Laver opfølgning på effekten af implementeringen af hjælpemidlet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9

Subsidiaritet

Al anden lovgivning skal overvejes først:

Hvis formålet er at

- *forbedre funktionsevnen* or
 - *forebygge yderligere forværring – som alternativ til anden behandling*
- anses det ikke for at hjælpemiddel med et behandlingsredskab anden lovgivning, som ikke forvaltes af kommunen, men af regionen (hospitalet).

- Gælder også fx hjælpemidler til arbejdspladsen og hjælpemidler til undervisning.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10

Hjælpemidler vs. forbrugsgoder

Hjælpemidler:

Hjælpemidler omfatter produkter, der er fremstillet og forhandles med det formål at kompensere eller støtte.

→ 100% dækning af udgiften. Produktet ejes af kommunen.

Forbrugsgoder:

Forbrugsgoder omfatter produkter, der er fremstillet og forhandles bredt med henblik på sædvanligt forbrug hos befolkningen i almindelighed

→ 50% dækning af udgiften. Produktet ejes af borgeren.

Social- og Boligstyrelsen
August 2023

Side 7

Kvalitet

Hjælpemidler, som markedsføres til personer med funktionsnedsættelse, skal være CE-mærkede efter Medicinsk Udstyrs direktivet

Danske fabrikanter og forhandlere af hjælpemidler, som markedsføres til personer med funktionsnedsættelse, skal være registrerede hos Lægemiddelstyrelsen

Ved indkøb af hjælpemidler opfordres kommunerne efterspørge produkter, som lever op til kravene i relevante standarder (internationale og europæiske). På den måde sikrer kommunen sig den bedste kvalitet og sikkerhed for borgeren

Udbud og indkøb

I princippet indkøber hver kommune hjælpemidler til sine egne borgere

I praksis samarbejder mange kommuner om fælles udbud og indkøb

Kommunerne har mulighed for at købe produkter uden for indkøbskontrakten efter en individuel vurdering

I princippet kan kommunen således købe ethvert produkt (hjælpemiddel) på markedet – der er ingen lister over godkendte hjælpemidler

Kommunerne opfordres til at købe produkter af høj kvalitet

APV-hjælpemidler – hjælpemidler til arbejdsmiljø

Hjælpemidler, som skal sikre gode arbejdsforhold for kommunens plejepersonale, bevilges ikke efter reglerne om personlige hjælpemidler. De implementeres efter reglerne i Arbejdsmiljølovgivningen.

Personlige hjælpemidler:

Borgeren har medbestemmelse – skal medvirke til udredning af egen sag.

Borgeren har ret til at benytte bevillingen til at vælge et andet hjælpemiddel end det bevilgede (mod delvis egenbetaling).

APV-hjælpemidler:

Kommunen beslutter suverænt, hvilket produkt de vil bruge i plejen.

3. 시사점

1) 복지 기술의 미래

(1) 웰페어 테크의 필요성

우리나라처럼 덴마크도 ‘초고령화 시대’라는 당면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노인 돌봄’에 기술을 접목하여 활로를 찾고 있다. 세계 최고 복지국가 중의 하나인 덴마크를 대표하는 수식어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어르신을 위해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42.4%에 달하는 엄청난 세금 비율(덴마크 통계청)이 뒷받침하고 있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지원금이 48만 원에 그쳐 활동형·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구매에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덴마크 지자체에서는 초고가(1,000만 원 이상)의 보조 기기도 평생 지원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이동의 자유를 통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알약이 나오는 디스펜서 등 보조 생활 기술을 비롯해 고급 원격 건강 솔루션 등 복지 기술 확산을 독려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신 기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을 지원하여, ‘변기 목욕 의자’나 ‘자동으로 침대 시트를 갈아주는 제품’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복지 기술 개발은 요양보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노인 돌봄의 질’도 높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급속한 초고령화로 만성 질환과 장애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돌봄과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웰페어 테크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다.

(2) 웰페어 테크의 응용 분야

웰페어 테크는 정보 기술(IT)과 기타 혁신적인 솔루션을 복지 및 사회 복지 부문에 통합하는 기술이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노인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효율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기술 응용 프로그램 또는 플랫폼이다.

특히 웰페어 테크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의 삶을 크게 개선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웰페어 테크의 주요 응용 분야

는 다음과 같다.

① 원격 의료

원격 의료는 의료 전문가가 화상 통화나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원격으로 의료 상담, 진단, 치료를 제공하여, 의료 시설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다. 특히 원격 의료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인 시골이나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원격으로 의료 전문가와 연결하면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다.

② 원격 모니터링

원격 모니터링은 웨어러블 기기 및 센서를 사용하여 개인의 바이탈 사인 및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이 정보를 사용하여 개인의 건강을 추적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 특히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보조 기술

스마트 휠체어, 보청기, 외골격 같은 보조 기술은 장애인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일상 업무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는 스마트 휠체어, 고급 보청기, 이동성 지원을 제공하는 외골격 등이 대표적이다.

④ 스마트 홈

스마트 홈 기술은 노약자나 장애인의 특정 요구에 맞게 맞춤 설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음성 인식 제어, 자동 조명 및 일상 업무를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타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스마트 홈에는 낙상 감지 시스템, 복약 알림, 응급 상황 알림 시스템과 같은 안전 기능도 탑재할 수 있어 필요할 때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⑤ 가상 및 증강 현실

가상 및 증강 현실 기술은 재활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실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인지

또는 신체장애인이 잃어버린 기능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⑥ 로봇 공학

사회적 상호 작용을 제공하거나 개인 관리 작업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로봇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유, 목욕, 말동무와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은 간병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일관된 지원과 동반자 관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 전문가가 환자 치료에 대해 보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보다 개인화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웰페어 테크의 세계동향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각국이 인구통계학적 변화, 의료 비용 증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복지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선진 복지 기술 정책과 시스템을 갖춘 대표적 국가인 덴마크, 독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① 덴마크

1974년 사회서비스통합법 제정과 함께 돌봄서비스 제공 책임을 기초지자체 단위로 이관하고, 1980년대부터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3년 공공부문 디지털 복지전략을 수립, 돌봄영역에서 4대 복지기술(천장부착 리프트, 샤워화장실, 취식보조식기, 홈케어 보조기기) 개발 확산, 공공복지기술 기금을 통해 복지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건강을 위한 국가 전략: 이 전략은 의료 부문의 디지털화 및 간소화, 치료의 질 개선 및 환자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덴마크 기술 연구소(DTI): 덴마크 기술 연구소는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의료

및 사회 서비스를 위한 복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덴마크는 혁신적인 복지 기술의 개발과 구현을 위해 공공 기관과 민간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리빙랩: 리빙랩은 복지 기술 솔루션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시연하여 실질적인 피드백과 미세 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② 독일

디지털 헬스케어법(DVG): 2019년에 통과된 DVG는 원격 의료, 전자 처방전, 디지털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여 의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 기금: 이 기금은 혁신적인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과 구현을 지원한다.

스마트 서비스 월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는 의료 및 기타 부문의 디지털 솔루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월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역 이니셔티브: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등 여러 독일 주에서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복지 기술 전략과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③ 일본

제5차 과학기술 기본 계획: 연구 개발을 통해 의료 혁신과 복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봇 공학 및 IoT(사물 인터넷) 통합: 일본은 노인 간호·간병 및 의료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봇과 IoT 기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소사이터티 5.0: 일본은 '초스마트 사회'를 향한 비전의 일환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복지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기반 통합 케어 시스템: 일본은 복지 기술과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를 지원하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④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시 웰페어 테크 기반의 비대면 공공 돌봄서비스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독거노인들이며, 대표적인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로는 세 가지가 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08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로, 센서 장비를 통한 안전 모니터링과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 방식으로 운영되며, 적용 대상이 더 넓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정책상의 제반 문제에 대한 환류와 변화가 느린 한계를 보여왔다.

독거 어르신 건강안전관리솔루션 IoT 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로, 역시 센서 장비를 통한 안전 모니터링과 고독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서비스: 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자체의 민관협력으로 시행되는 기술 기반 돌봄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들에게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음성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민관협력형 복지 기술 모델로 혁신적 확산의 단계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맺음말

이처럼 웰페어 테크 기반의 돌봄서비스는 앞으로 노령화 사회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문제와 요구에 적응하며 더욱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고려, 서비스 제공자들의 전문성 및 인력 양성,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고립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웰페어 테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확산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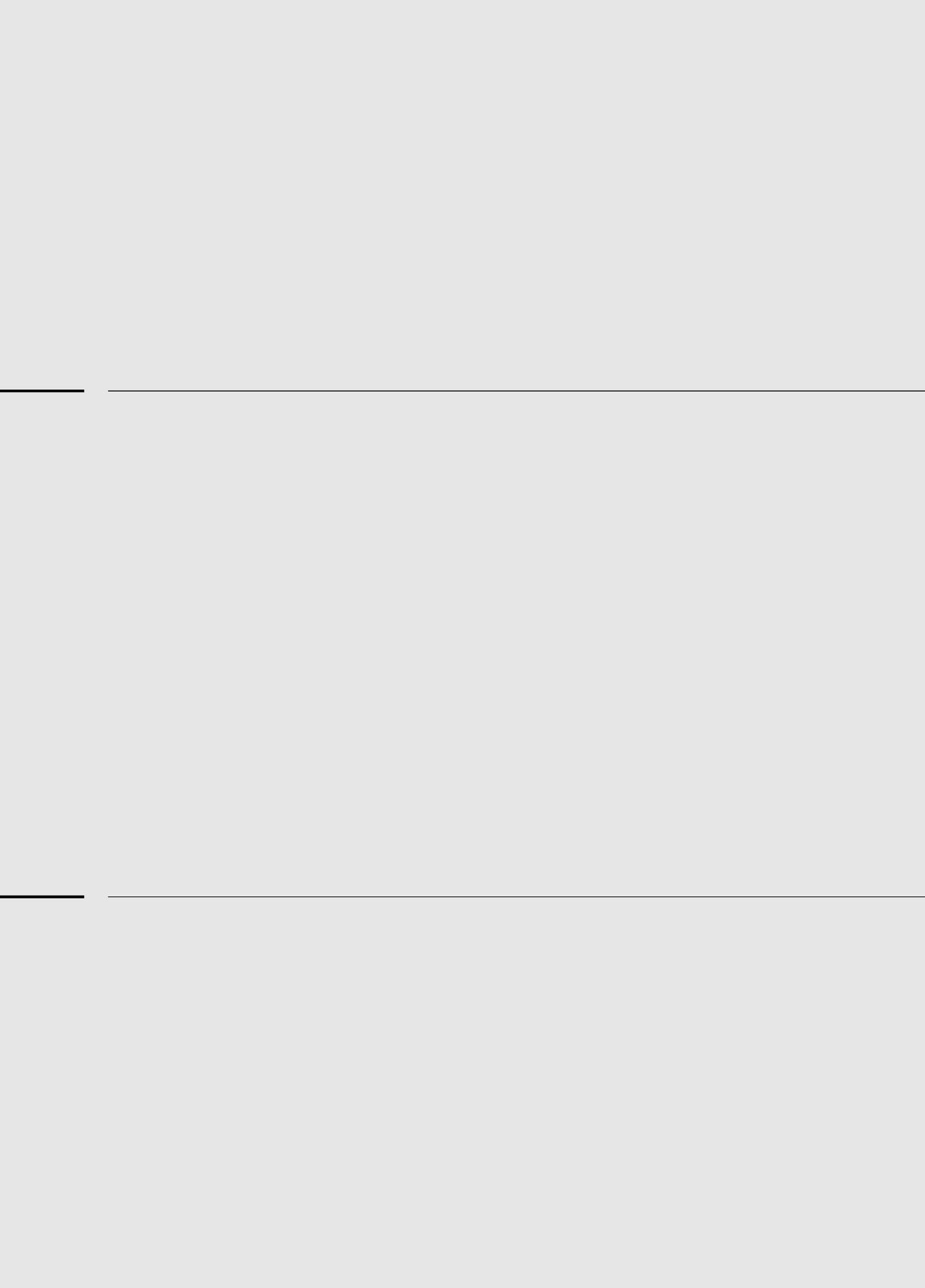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참고문헌

Assistdata 홈페이지(<https://hmi-basen.dk/>)

로그인플러스, IT 기술과 복지의 만남(<https://blog.naver.com/loginplus365/223245981708>)

보건복지부 블로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023020&memberNo=31572221&vType=VERTICAL>)



Digital Hub Denmark 기관 소개 및 시사점

발표 4. 문영임 팀장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정성희 주임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Digital Hub Denmark 기관 소개 및 시사점

문영임 팀장 · 정성희 주임 / 한국장애인재단 연구기획팀

1. 기관소개

Digital Hub Denmark는 90% 정부지원, 10% 민간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단으로 디지털 정부 및 성평등부(Ministry of Digital Government and Gender Equality) 부처의 산하기관이다.

디지털허브덴마크의 주요 사업은 디지털 인재육성 및 기술시스템 구축·지원이며, 이와 더불어 디지털 관련 국제협력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민·관·학이 연계된 디지털 네트워크 구축 및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분야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부의 ICT 전략을 조언 및 지원하고 있다.



2. 기관 주요 내용

1) 기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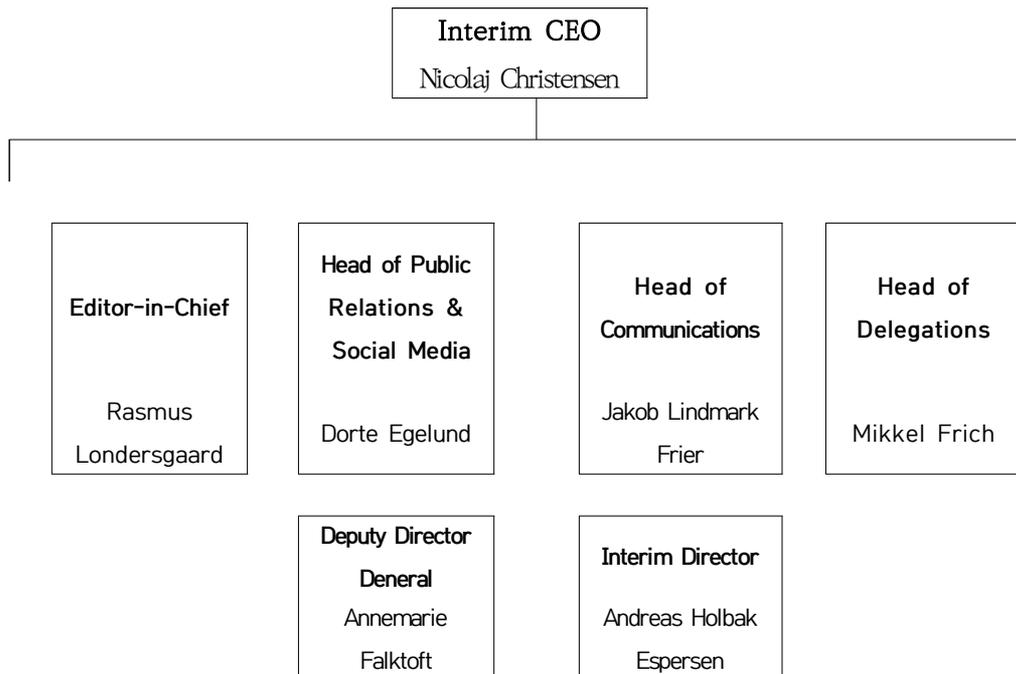
(1) 비전

유럽의 선도적인 디지털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 인재 발굴 및 유치, 미래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 서비스 등 자체 개발 디지털 솔루션을 실행한다.

(2) 목적

덴마크를 최첨단 디지털 솔루션 및 서비스의 선두에 포지셔닝하여 최고의 디지털 국제 인재 양성, 고객 및 자원 유치를 통해 덴마크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3) 조직도



(4) 중점 사업 분야

덴마크 정부는 비즈니스 벤처를 장려하고 동시에 사회적,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 허브 덴마크는 덴마크의 다양한 기술 분야인 핀테크(FinTech), 헬스테크(HealthTech), 로보틱스(Robotics), 크리에테크(CreaTech), 프롭테크(PtopTech), 애그리테크(AgriTech), 에듀테크(EdTech)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① 핀테크(FinTech)

덴마크는 혁신적인 핀테크 솔루션을 토대로 덴마크 금융감독청(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과의 협업을 통해 코펜하겐 핀테크(Copenhagen Fintech)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세대 금융 솔루션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 개발 칩 공유하고 있다.

신뢰, 협업, 인간중심, 민주주의 등 가치를 토대로한 시민들의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핀테크가 활용되고 있다.

② 헬스테크(HealthTech)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이다. 이에 Health Tech Hub Copenhagen을 통해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과 협력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공공의 주도하에 건강문제 해결하고자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리터러시를 통해 헬스케어 네트워크 구축 및 공공 의료기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③ 로보틱스(Robotics)

덴마크는 유럽 최고의 로봇 클러스터 본거지로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자동화, 지능형 로봇,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보틱스 분야를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로봇 공학과 드론 분야에서 첨단기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필요한 기업과 연계하여 지능형 로봇공학, 드론 및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④ 크리에크(CreaTech)

크리에크는 e-스포츠, 게임, 영화, TV, 애니메이션 및 VR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 및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덴마크 CreaTech는 1,800개의 일자리 창출과 2억 DKK 수출 성과를 이루었으며, 전통적인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 나아가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 산업과 맞물려 다각도로 확장되고 있다.

⑤ 프롭테크(PropTech)

프롭테크는 건물, 공공 장소, 도시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접근과 맞물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재무 및 보고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건축가, 디자이너, 엔지니어, 컨설턴트, 도시 계획자 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⑥ 애그리테크(AgriTech)

덴마크는 디지털화된 농업 및 식품 부문의 선두주자로, 농업에 있어 드론과 AI로 작물을 관리하는 하는 기술을 개발 및 연계하고 있다. 즉 농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술로 높은 생산과 자원 효율화를 추구한다.

현재 80개 회사와 1,200명의 직원이 연계되어 농업 및 식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식품 생산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⑦ 에듀테크(EdTech)

덴마크 정부와 교육기관은 교육과 학습에 기술 구현 및 융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이에 교육 시스템과 학습에 사용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교수법 분야에서의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70개 이상의 조직이 디지털허브 산하에 있으며, 교육 기술의 개발 및 사용을 통해 협업 및 교육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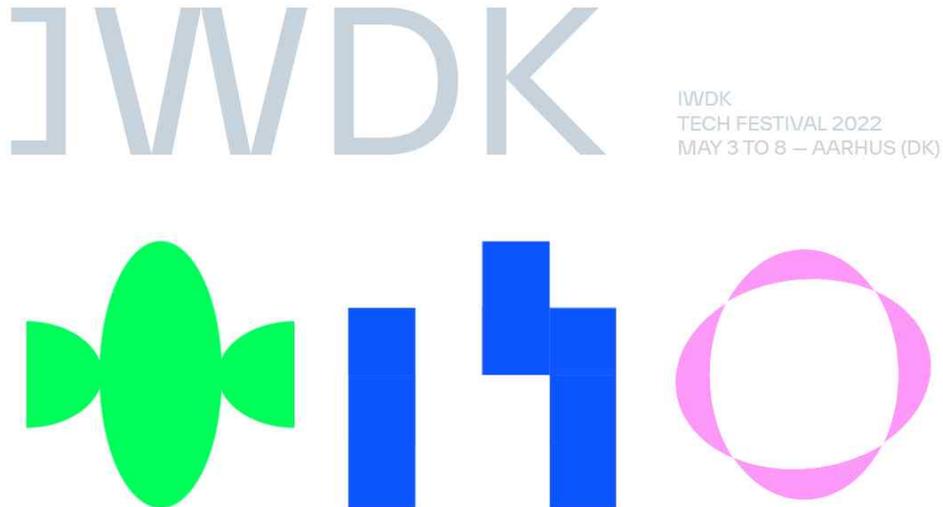
(5) 주요 프로그램

① ‘노르딕 패스트 트랙(The Nordic Fast Track Program)’ 프로그램

디지털 허브 덴마크가 추진하는 ‘노르딕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The Nordic Fast Track Program)’은 전세계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덴마크 핀테크 시장에 진입 및 진출할 수 있도록 덴마크 현지 전문가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덴마크를 글로벌 금융기술 및 디지털 경제 국가의 선두주자로 성장시키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덴마크에 위치하지 않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타트업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중심으로 북유럽, 나아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IWDK(Internet Week Denmark)’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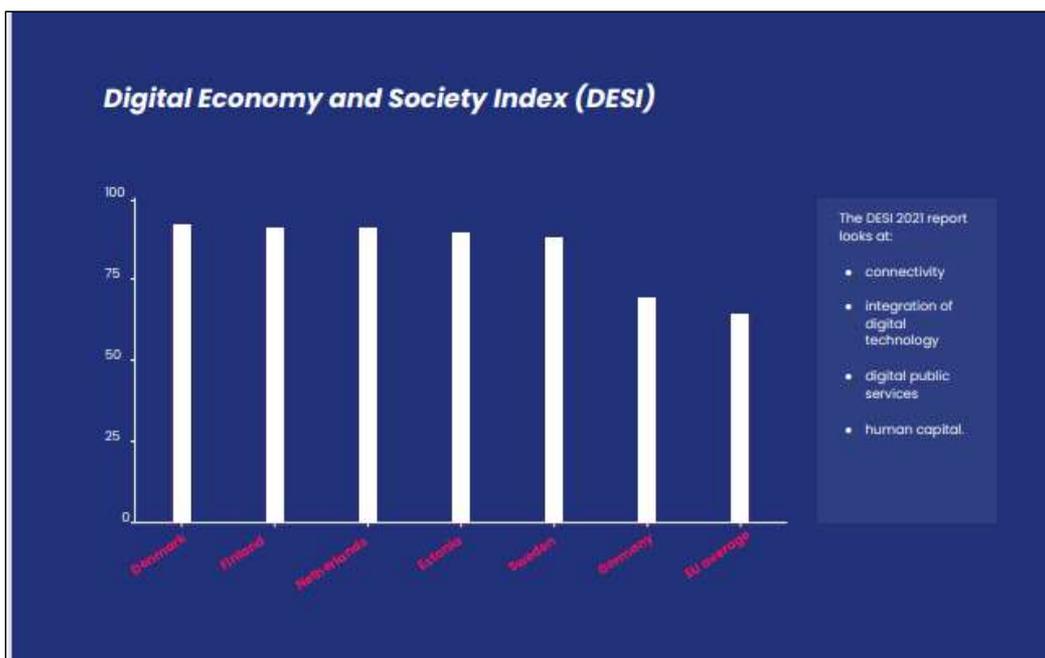
IWDK(Internet Week Denmark)는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6일간 진행되는 디지털 축제이다. 이에 매년 전세계 10,000여명이 넘는 참여자가 IWDK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변화·혁신·미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 토론, 워크숍 등이 해당기간에 개최된다.

디지털 허브 덴마크는 매년 3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그린테크, 기업가, 시민을 주제로 해당 이벤트가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디지털 허브 덴마크는 Tech BBQ, CPH Townhall, EOT-Electronics of Tomorrow, offDig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기관 방문

(1) 기관 인터뷰 내용

① 전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를 차지한 덴마크는 전 연령의 전자정부 접근성과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세 이상 국민의 무려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60세-74세 연령층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은 65%에 불과하지만 덴마크 55-74세 연령층의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이용률은 무려 84%, 75-89세 연령층의

이용률은 76%에 육박한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덴마크 국민의 높은 접근성은 디지털청의 지속적인 디지털 정부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으로 디지털 공공 서비스가 추진됨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민간기업의 서비스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되듯이, 공공서비스도 국민과 기업에 친화적으로 설계·구축하여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지원 법안과 같은 새로운 법령도 제정되는 등 디지털 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② 디지털 인증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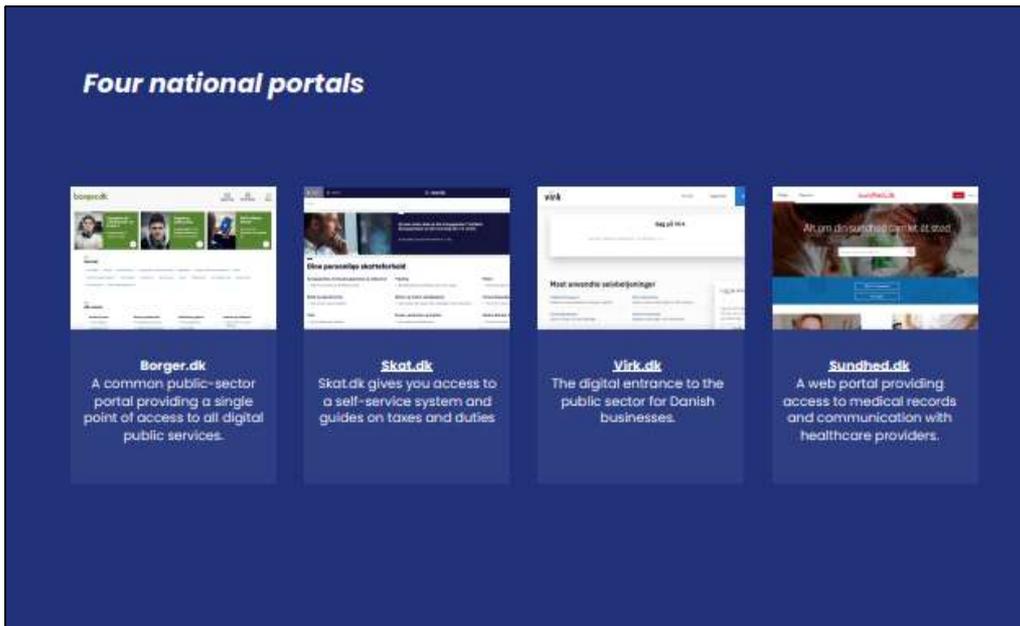
1968년 CRP(주민등록번호) 도입 이후 체계적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2001년 디지털 인증, 2004년 통합은행계좌, 2007년 공공기관 접속을 위한 디지털 ID가 도입되었다.

덴마크 최초의 디지털 ID는 2003년에 발행되었으며, 현재 “NemID”를 사용하고 있다. NemID(MitID)는 공공 행정 및 이용 시 이용하는 디지털시민증이다. 이에 인터넷상에서 전자 문서 서명 시 실명인증의 도구로 사용되며, 온라인 banking, 증권 거래, 시설 및 공공기관 접속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NemID는 덴마크 국가에서 개인 및 법인용으로 발급되며 사용자 ID, 비밀번호 및 일회용 코

드가 있는 키 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로그인 시 먼저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키 카드의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ID 기술은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사용되는데, 2022년 덴마크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를 개선하여 새로 개발된 MitID로 대체되었으며, MitID는 NemID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③ 디지털 공공서비스와 디지털 포스트



덴마크는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의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물론, 플랫폼을 통해 각종 서비스와 시스템을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공공 서비스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지역 및 언어적 장벽까지 해소함에 따라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이용자간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덴마크는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통해 누구나 공공 서비스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 또는 대규모 국가적 행사시에는 단일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여 제공하고 있

다.

한편 덴마크 정부는 우편 대신 전자문서로 활용하여 공공 문서 작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 공공영역에서 각종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문서양식을 통합하였다. 이에 현재 덴마크 국민의 90%가 연금, 급여, 의료, 결혼 신고 및 이혼 신청, 장기기증, 지자체 서비스(돌봄, 홈케어, 보조기 등)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관련 신청 및 문의 등을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전자문서 통해 소통하고 있다.

④ 디지털 취약계층 위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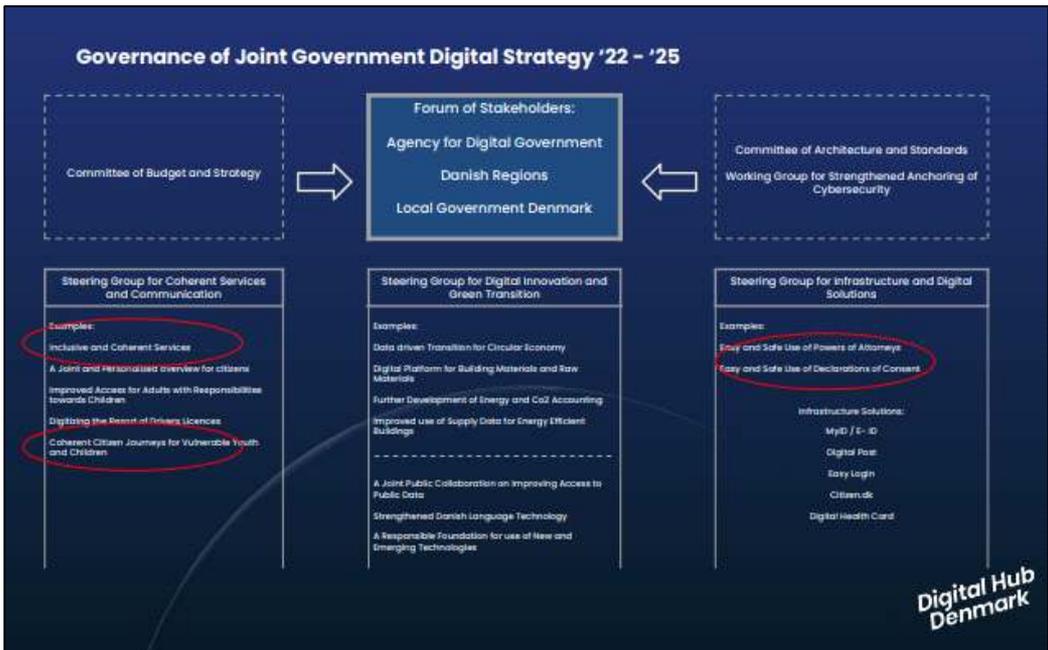
디지털 취약계층은 컴퓨터 사용 경험이 없는 노인, 15세~25세의 이민자, 발달 및 인지장애 시민(2%), 기능손상이 있는 시민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포용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장비 개발, 디지털 소통과 처리 과정의 단순화, 디지털 조력자 제공 등 다각도의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현재 5개의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인 10% 시민의 디지털 접근성 및 활용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덴마크 실케보르(Silkeborg)시는 VR을 이용하여 취약계층 청년들이 일상생활로 복

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지자체가 도입한 VR프로그램은 불안지수가 높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버스를 타거나 직장에 가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적인 상황을 연습할 수 있는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명의 청년 중 한 명은 완전히 자립 하였으며, 나머지 네 명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⑤ 디지털화 선두



덴마크의 공공 디지털화 전략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아래 진행되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덴마크 디지털 성장전략’은 디지털 허브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전환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이다.

덴마크 ‘Digital Growth Strategy 2025’ 에 따르면 ① 디지털 허브 조성 ②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③ 교육을 통한 대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④ 경제 및 시장의 성장동력으로 데이터 활용 ⑤ 디지털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⑥ 기업의 IT 보안강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총 38개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이용자의 사용 편리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지속가능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기관 방문 사진



3. 국내 시사점

디지털허브덴마크의 성공사례와 경험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복지를 활용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디지털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의 통합성을 강조해야 한다. 덴마크의 디지털 허브는 공공 기관 간 협력과 데이터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 인프라의 통합성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민간·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 융합·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정부의 서비스를 한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연계·통합해야 할 것이다.

둘째,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덴마크는 공공서비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공공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이 선택한 하나의 아이디,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인증체계 구축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정부가 이미 수집·보유하고 있는 정보(개인정보, 첨부서류 등)에 대한 중복 요구가 최소화되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처 등 범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모드 설계 가이드 및 템플릿을 개발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관련기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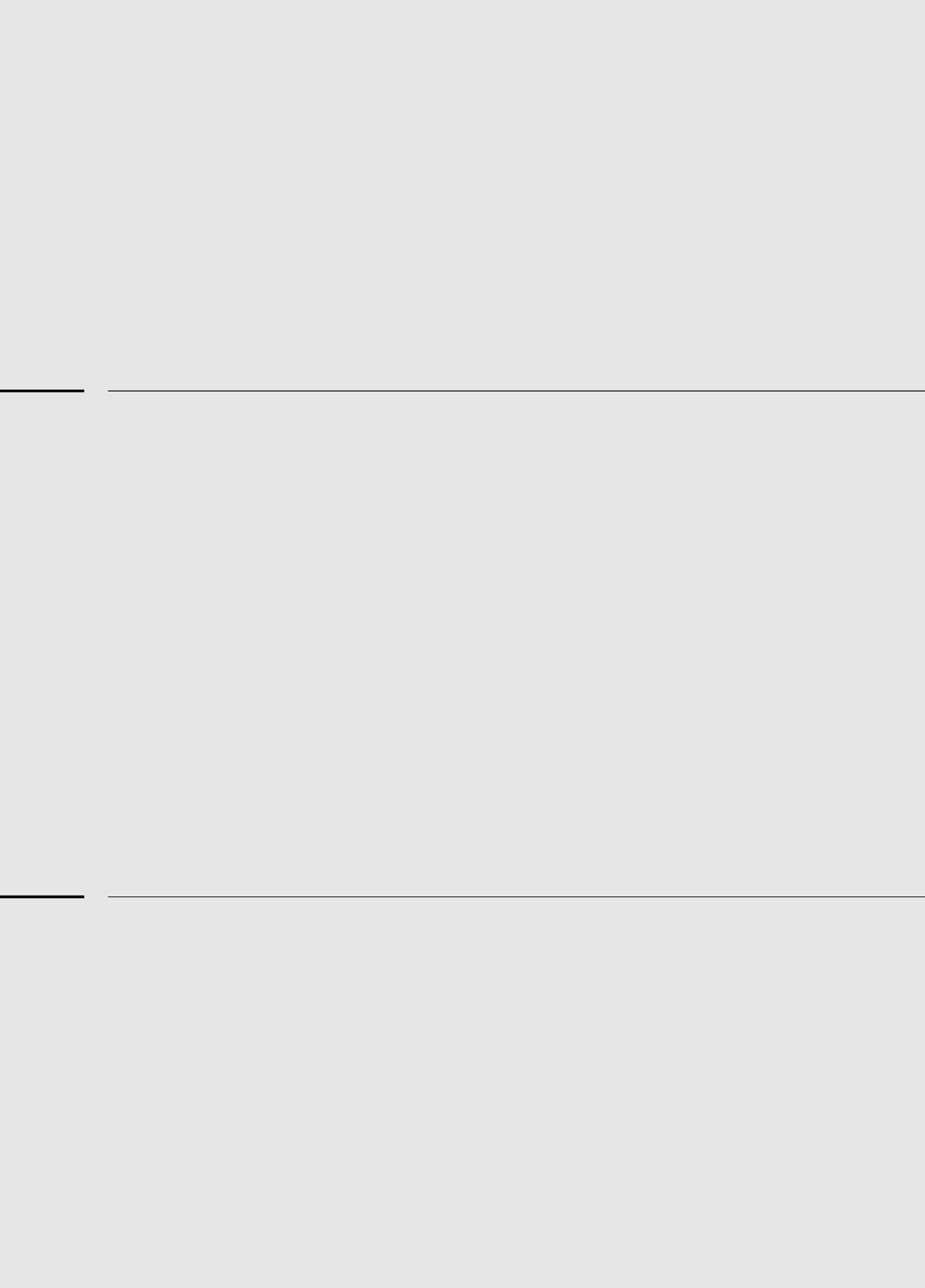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단순히 경제성장의 동인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 주도 하에서 데이터 기반 국가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덴마크 전문 미디어 <http://nakeddenmark.com/archives/10205>

김학주(202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지원체계의 모색: 핀란드와 덴마크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66.

진영현 외, (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 산업 고도화와 융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10대 정책 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보고서.



장애인협회 기관 소개 및 시사점

발표 5. 정의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황진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팀담당)

덴마크 장애인협회(DASKE HANDICAPORGANISATIONER)

기관 소개 및 시사점

정의철 사무총장 · 황진하 정책홍보팀 담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 기관소개

1) 소개

덴마크 장애인 협회는 1934년에 설립되었으며 장애 분야에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현재 36개의 장애인 단체가 DH의 회원이며 약 400,000명의 장애인을 대표합니다. DH는 시 경제를 기준으로 97개의 지점을 설립했습니다.

2) 조직도

36개의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분들과 97개의 지부에 있는 멤버가 구성하여 총회를 이루어져 있고 7명의 이사회를 선출하여 실제적인 운영은 7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 부회장만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구성원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조직과 의사소통 ② 정치와 분석 ③ 국제학과 ④ 예산과 행정 부서로 4개의 하부조직에서 3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3) 예산

한국으로 비유하면 복권회사에서 수익금이 나오는데 일부는 장애인협회나 다른 단체를 지원하게 돼 있고 회원단체 회비와 지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 목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 단체를 대표해서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협력 정치인들 또는 지자체와 협력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단체들과 데모를 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5) 비전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일원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감

6) 미션

영향력, 지식, 참여 의견이 공통된 단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비전, 미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함

7) 전략

35개 단체들로부터 관심사, 요구사항을 모아서 하나의 공통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회원단체들이 경쟁보다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각 단체별로 국회, 미디어를 별도로 접촉할 수 있지만 공통된 관심사 대응)

2. 기관 주요 내용

1) 기관내용

(1) 활동

① DH 부서의 핵심 업무

DH는 장애인이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하게 사회에 완전하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 완전히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일합니다.

DH는 정당 정치적으로 독립적이며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 이익 대표를 중심으로 일합니다.

DH 부서는 지역 정치인과 지방 공무원이 정책과 입법을 시행하는 개별 지방 자치 단체의 지역 수준에서 이익의 정치적 대표와 협력합니다.

② UN 장애인 위원회와 DH의 업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UN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18명의 독립적인 장애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4년마다 위원회를 심사하여 덴마크가 협약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DH는 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문제를 수집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많은 중요한 질문과 권고 사항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덴마크에서 모든 구제 수단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해야 가능합니다.

(2) 정치적 주제

고용: 우리는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존엄성을 창출해야 합니다.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 불평등은 크고, 장애인의 질병은 간과되고 있습니다.

교육: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도 스스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교육을 덜 받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장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장애를 가진 젊은이들을 포용하고 유연한 조건을 제공하는 데 더 능숙해져야 합니다.

편의: 장애인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회가 접근 가능하고 모두를 위해 설계될 때 가능해집니다. DH는 건물, 자연, 교통, 디지털화 및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행동합니다.

협력: 국제적으로 DH는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

다는 약속을 위해 일합니다. DH는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충족되는 지역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덴마크에서 DH는 덴마크의 개발 정책과 전반적인 덴마크 개발 협력 및 인도주의적 노력이 이에 기여하고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년 덴마크 의회는 덴마크의 국제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노력을 포괄하는 개발 정책 전략 'Sharing the World'를 채택했습니다. DH는 이 전략의 이행을 통해 덴마크의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노력이 장애인을 더욱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적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애 분야는 핵심 복지입니다.

※ 누구나 사고나 질병을 앓고 나면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낳거나 장애인의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좋은 지원은 우리 복지 사회의 핵심입니다. 장애 분야는 핵심 복지입니다.

2) 기관(DH)관계자 인터뷰(시프 홀스트: DH부회장)

Q. 장애인의 60%가 고용 돼 있다고 했는데 직종과 임금수준은?

A. 기본적으로 사무직이면 다른 사람과 같은 월급을 받게 되고 법적으로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정해지지 않으며 사무직 노조와 직종별로 급여가 정해짐. 시급제를 적용하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속도가 느릴 수가 있지만 2시간 일을 하더라도 1시간의 임금을 받게 됨.

장애인이 어느 직종에 분포되어있다는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지만 대학 이상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전문직종에 더 종사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 같은 경우 37시간 다 일을 하지 못하고 20시간 정도만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머지 17시간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급여를 제공해 주는 제도가 있음.(※참고로 덴마크는 주37시간 근무함.)

Q. 고용되지 않은 나머지 40%의 장애인은 장애연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건가요?

A. 실업자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장애인은 퇴직연금처럼 연금을 받는 형태로 가고 있음.

Q. 전동휠체어(보조기구)지자체에서 받은건지? 지원되는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은 스탠다드 모델로만 가지고 있으며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모델이 필요하면 그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함.

Q. 자동차 등록세를 내고 있나요?

A. 비장애인은 차를 사게 되면 등록세로 80%를 지불하는 데 장애인은 등록세가 면제되며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Q.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몇 대나 있고 많이 이용하는지? 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A. 정부에서 택시 회사들한테 장애인콜택시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는데 세금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는 많지가 않음.

하지만, 장애인이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때 보조수단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 차량 제공은 있고 1인당 연간 104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왕복 52회 정도 이용 가능함.

Q.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교육 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A. EU자체 규정에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똑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덴마크에서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덴마크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장애인을 포함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협회쪽에서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방법을 논의만 하고 있는 수준임.

Q.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협회에서 건의를 하면 귀담아 들나요?

A. 한국과 비슷하게 각 부처에서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만약 디지털부서라고 해도 장애인들의 불편함이 중심이 아니라 기타적인 디지털화에 대한 문제를 1순위로 다루고 있음.

그래서 덴마크 자체에서 듣지 않는다면 EU 위원회 정책으로 반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으며 두 번째는 장애인에 대한 친화적인 부서에 먼저 연락을 해서 다른

부서로도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정부가 4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부마다 특정 분야에 관심이나 요구사항이 많은 정부일 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Q. 덴마크 국회에 장애인 의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협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작년 국회에서는 의원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번 총선 이후로는 한 분도 없어서 협력은 힘들.

Q. 장애인협회 출신 중에서 국회의원이 있나요?

A. 정당이 14개가 있다 보니 국회의원이 되기 상당히 힘들며, 장애인이 당 대표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음.

Q. 예산을 복권기금이나 회비 수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받는 보조금은 따로 없나요?

A. 복권기금이 정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조금으로 볼 수 있고 회원단체에서 주는 회비로 운영하고 있음

Q. 장애인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기본적으로 구기 종목, 피트니스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은 없음.

Q. 한국은 중증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근로지원인을 정부에서 고용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덴마크도 그런 제도가 있나요?

A. 장애인이 취업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고용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또한, 회사에서 자체고용을 하더라도 추후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3) 기관 PPT자료

장애 정책 | 덴마크

DH

DH는 누구인가?

- 장애인 단체 공동 대변인
- 회원단체 35개
- 회원수 340,000명
- 97개 지역 DH 지점
- 1934년 창립



그는 35세입니다

희망 조직

DH는 무엇을 위해 일하나요?

- DH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장애인은 사회에 기여하고 기여하며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DH는 장애인 단체의 중요한 목소리입니다.
- DH는 모든 유형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뇌손상, 관절염부터 발달장애, 정신질환까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DH는 **전설적인** 태도를 원합니다.
#지나스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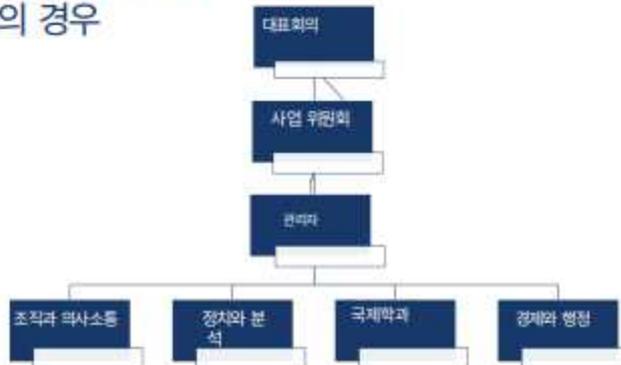


DH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국가: 의회, 정부 및 부처, 청문회, 회의, 의회, 위원회 등의 대표 및 공론화 참여
- 지역: 97개 지역 지점의 약 1,000명의 대표자가 지자체 수준에서 장애 정책을 만듭니다.
- 국제: 우리는 국제 개발 협력에 따라 EU 수준 (예: EDF)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대표됩니다.



조직 다이어그램 DH의 경우



DH의 사무국

DH



전략

DH



전략 및 실행 계획

본문 제 1을 기반으로 한 DH 전략
소유권

우산과 2 사이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회원단체

DH



정치적 주제

- 건강: 건강에 대한 평등한 접근
- 사회 정책: 삶의 질에 중점
- 가용성: 누군가에게 필요함, 좋은 모든
- 교육: 학교 및 교육 참여 확대
- 고용: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습니다.



<p>건강 • 건강 정책 • 건강 평등 확대 • 외로움과 웰빙</p> <p>사회정책 • 전문 사회영역의 개혁 • 최초의 올바른 도움 • 사회영역 지식 강화</p> <p>교육 • 초등학교에서의 더 나은 통합 • 특수 교육 제공 및 STU의 질 향상</p> <p>• 더욱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p>	<p style="text-align: right;">DH</p> <p>고용 • 장애인 일자리 증가 • 고용 시스템 운영 시 존엄성 • 합리적인 생활 조건</p> <p>접근성 • 접근성에 대한 DH 정책 • 향상된 접근성 및 보편적 디자인 • 지역 정책 • 디지털화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p>
---	---

3. 시사점

1) 덴마크의 장애인 정책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교육, 직업, 건강,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2) 덴마크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덴마크는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 **기본소득:** 덴마크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이는 장애인들도 포함되며, 장애인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장애인급여:** 덴마크에서는 인정된 장애인들에게 장애인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서비스:**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립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기구 제공, 집안일 도움, 장애인교통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덴마크 장애인 행복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덴마크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교육:** 덴마크에서는 교육제도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은 일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일자리:**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쉽도록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들을 우대하여 채용하고, 국가에서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 **사회적 포용:** 덴마크 사회는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합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식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덴마크에서는 장애인들의 행복과 자립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보장제도의 강화와 함께, 그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덴마크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귀감이 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4)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

스웨덴 장애인 정책 목표는 (1) 다양성을 기본으로 한 사회 공동체 (2)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완전히 참여하는 사회 구축 (3) 장애가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 증진 (4) 장애물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 (5) 차별을 방지하고 퇴치하는 것 (6) 장애아동부터 장애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독립·자율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스웨덴에는 2 단계로 이루어진 장애 연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첫 단계는 만 16 세에서 64 세 사이의 국민이 최초로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비교해 1/4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수당을 받게 하는 보편적 장애 연금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근로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에 대한 기여와 장애정도에 따른 소득관련 장애혜택입니다.

5)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 교육, 일자리, 문화예술, 이동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요 사업으로는 국정과제이기도 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지원 전국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과제들은 5년간의 중장기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의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활동 지원 신청 허용,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같은 변화보다는 기존에 시행 중인 정책을 위주로 일부 급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원의 확대는 장애인구 특성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지적되었던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으나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 풀어야 할 과제들

장애인정책과 계획들은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계획은 좋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았다. 이유는 대부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며, 즉 정책은 예산을 통해서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데, 금년도 정부의 각 부처를 망라한 장애인 관련 예산 총액이 전년 대비 9% 이상 증액(보건복지부는 10.5% 증액)은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장애수당, 발달장애인 지원비 등 당사자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6) 덴마크와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비교

한국과 덴마크는 장애인복지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덴마크는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국가예산의 1/3을 복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아이들 교육과 의료, 노인요양 등 모든 것을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실업수당도 9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장애인복지 제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장애인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이 더욱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비교하면 덴마크의 장애인복지 제도가 한국보다 더욱 발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7) 맺음말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질은 ①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를 획득하는 것 ②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것 ③ 개인적인 즐거

움과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장애인 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고 이들을 지원한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서비스의 내용은 당사자와 함께 설계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계획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https://handicap.dk/> 덴마크장애인협회 홈페이지

<https://tripjoy.tistory.com/entry/덴마크-장애인-행복-소득보장제도의-비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811>

<https://m.blog.naver.com/ggnurim/223024185106>

<https://www.dwb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569>

2023년 장애인 정책 분야 국외연수사업



2023.12.29